



NEWS LETTER

2019년 12월 16일 Vol. 360

신경과 박정이 교수, ‘인지증재치료학회’ 학술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박정이 교수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병원에서 개최된 ‘인지증재치료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인지증재치료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증재치료 연구 내용을 국제 저널에 발표한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논문내용은 반복적 경두개 자기 자극(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을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의 난치성 사지운동성 실행증 치료에 대한 연구이다. 앞서, 박 교수는 올해 초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의 음식 분석’에 대한 과제가 채택되어 연구자상을 받은 바 있다.



2019 노·사 화합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만해마을에서 ‘2019 노·사 화합 워크숍 및 제3차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화합과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열 일산행정처장을 비롯해 백유진 노조지부장 등 노사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열 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 워크숍이 처음 마련된 자리인 만큼 노·사 간의 화합과 신뢰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은 2019년도 경영활성화의 기틀이 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지속해서 발전 시켜 2020년에도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노재원 학생,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노재원 학생이 지난 27일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교육부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동국대 의과대학 최초로 인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노재원 학생은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서 대한민국을 가슴 깊이 새겨,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다”며 “상금 250만 원 전액을 모교에 기부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서정일 동국대 의과대학장은 “노재원 학생의 인재상 수상은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쾌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상의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중앙환자관리위원회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중앙환자관리위원회에서는 최근 4층 중강당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재활의학과 남기연교수와 성형외과 홍기용 교수가 연자로 나서 ‘림프부종의 재활치료’와 ‘림프부종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의사, 학생,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 다양한 직종의 4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남기연 교수는 “림프부종 환자의 경우 유방암, 부인암 등의 여성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많으며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형외과 홍기용 교수는 “수술로 인한 림프부종 환자의 경우 온전한 림프관이 남아 있는 발생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앙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 곽범석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수술 후 부작용인 림프 부종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 과정에 많은 정보를 주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